



어찌 이곳을 흠뜨리려 합니까?

4대종교 '낙동강 공동기도회' ... 4대강 사업 저지 공동결의문 발표

30여 년에 걸쳐 만들어진 낙동강의 모습이 3개월 여 만에 사라졌다. 인간의 손에 흐트러진 낙동강에 종교인들이 모였다. 경북 상주시 중동면 낙동강변 모래밭에서 종교인들은 손을 잡고 낙동강이 그대로 흐르기를 기도했다. 굽이굽이 흐르는 강 앞에서는 너와 나, 종교의 장벽을 넘어 '생명의 강, 아버지의 강'이었다.

불교 · 개신교 · 가톨릭 · 원불교 등 4개 환경단체들의 모임인 종교환경회의(상임대표 수경)는 3월 15일 4대강 사업 현장인 낙동강 상주부에서 공동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200여 참가자들이 모여 4대강 사업저지 운동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행사는 기도로 시작됐다. 지을 스님은 "대한민국 국토개조론, 한국의 두바이, 한국형 뉴딜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3조5000억 원이 배정됐다. 수많은 생명을 죽이고 아름다운 고유의 가치와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이 정부가 내세우는 한국형 녹색 뉴딜 사업인가?"라고 호소했다.

최완택 목사(생명의강환경연대 상임대표)는 본 행사에 앞서 "강은 태초부터 흘러 이곳까지 왔다. 강은 영원히 흘러야 한다. 조물주의 섭리를 거부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 흐름을 이길 힘은 아무데도 없다"고 기도했다.

김진조 신부(가톨릭 안동교구 생명환경연대 대표)는 "정부는 국민적 합의 없이 4대강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을 막



불교 · 개신교 · 가톨릭 · 원불교 4개 환경단체들의 모임인 종교환경회의는 3월 15일 4대강 사업현장의 한 곳인 상주시 중동면 낙동강변에서 4대강 사업저지를 위한 공동기도회를 개최했다. 참가자 200여 명은 모래밭에 4대강 저지의 뜻을 '흐르는 강' 4글자를 모래로 새겨 만들었다. 강변에서 빨강색 깃발까지 4m의 길이로 땅을 파는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 못한 것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닌 사회전체의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기도에 이어 참가자들은 낙동강변에서 '아버지 강, 생명의 강'을 노래하며 손을 잡고 모래위에 원을 그렸다. 강변에는 '흐르는 강' 4자를 크게 그려 넣었다.

참가자들은 낙동강 일대, 상주부 공사현장도 순례했다. 순례 중에는 공동결의문이 낭독됐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정부가 끝까지 민심을 외면하고 저버린다면 종교인들은 온갖 불의로 점철된 4대강 사업을 전국의 사찰, 성당, 교당에서 모든 종교인들이 온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끝까지 저지해 나갈 것입니다."

종교환경회의는 결의문에서 "종교인의 소명에 따라 생태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행동으로 옮겨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 결의문에 앞서 개신교, 불교, 원불교, 가톨릭의 순으로 기도문을

낭독했다. 4대 종교는 4대강 문제가 인간의 물질적 욕망, 탐욕, 교만에서 비롯된 것임을 참회하고 4대강 사업의 중단을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낙동강 순례 1년째인 지을 스님은 순례단에게 4대강 살리기 공사의 실체를 꼼꼼히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지을 스님은 3개월 전 거처도 낙동강 상주부 공사 현장 인근으로 옮겨졌다. 스님은 낙동강이 변하는 순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낙동강을 걸으며 인간의 탐욕에 망가지는 모습

을 렌즈에 담고 있다. 스님이 촬영한 낙동강은 다음 카페(cafe.daum.net/chorok) 등에 공개되고 있다.

지을 스님은 "정부의 4대강 정책은 반드시 재검토 돼야 한다"며 "매일 1000여 종의 나무와 1만 여 종의 생명이 사라지고 있다. 굽이굽이 흐르던 강이 엮전처럼 네모반듯하게 변하고 있다. 100년도 채 못사는 인간들이 3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자연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가"라며 개탄했다.

노현문 신부(산청 성삼위일체성당)는 "100마디 말보다 직접 봐야 심각성을 안다. 직접보고 나니 4대강 공사의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며 "꾸준히 공사현장을 방문해 기도로 저지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동기도회에는 지을 스님 등 몇몇을 제외하고는 불교계 인사의 참여가 없어 불교계의 범종교적 연대활동의 한계를 드러냈다. 불교환경연대를 비롯한 불교계 단체와 사찰, 시민사회단체 등은 4월 17일 서울 조계사에서 '못 생명이 공존하는 세상을 위하여'란 주제로 환경법회를 개최한다.

한편, 4대강 사업에 국제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 측 대응이 주목된다. 최근 교황청의 4대강 관련 성명 발표와 함께 3월 19일에는 세계3대 환경단체 '지구 의 벗' 니모베시 국제본부의장이 여주 여강선원(선원장 수경)을 방문해 4대강 보호를 위한 지구적 차원의 연대운동을 논의했다. 이상연 기자

"오직 수행에만 매진하라"

법정 스님, 인연의 소중한 답은 유언 공개

무소유 법정 스님이 상좌들에게 한 마지막 당부는 쉽지는 수행정진이었다.

맑고 향기롭게는 3월 17일 서울 길상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2월 24일 작성된 '상좌들 보아라' '남기는 말' 두 편의 유언장을 공개했다.

법정 스님이 끝까지 무소유를 실천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스님은 유언 '남기는 말'을 통해 "내 것이라는 것이 남아있다면 모두 '맑고향기롭게'에 주라"고 말했다. 또, "풀어놓은 밭빛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않으려 하니, 부디 내

에는 불일암에서 10년간 오로지 수행에만 매진할 것"을, 다른 상좌들에게는 "존중과 합심이 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의 '미리 쓰는 유서'에서 언급했던 '머리맡에 남아 있는 책을 나에게 신문을 배달한 사람에게 전하라'는 말도 다시 꼼꼼히 행했다. 생전에 '밭빛'을 자주 거론했던 스님이 인연과 약속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며 살았는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같은 날 봉행된 스님의 초재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법흥 스



3월 13일 서울 길상사에서 법정 스님의 초재가 봉행됐다.

이름으로 출판한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 달라"고도 말했다.

'남기는 말'이 스님 자신을 위한 당부라면, '상좌들 보아라'는 상좌를 비롯한 대중에게 부단하게 수행 정진할 것을 당부하며 적은 '임종계'이다.

대중에게 쉽고 편한 생활법문을 전했던 스님은 마지막 남기는 '임종계'까지도 대중적인 유언의 형식을 빌어 쉬운 표현·내용의 글로 남겼다.

스님은 '상좌들 보아라'에서 "내가 떠나더라도 마음 속에 있는 스승을 따라 청정수행에 매진하여 자신 안에 있는 불성을 드러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리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들기 전 부처님이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남겼던 "마음을 부처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證佛法燈明)"는 말씀 같은 유언은 말상좌인 덕조 스님에게 전하는 간절한 당부로 이어졌다.

스님은 덕조 스님에게 "결계 중에는 제방선원에서, 해계 중

님이 추모사를, 前 전국수좌회 대표 해국 스님이 법문을 했다. 해국 스님은 "(대중이) 마음 수행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때 법정 스님을 영원히 모시는 것"이라며 추모했다.

이에 앞선 15일 길상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3월 21일 봉행될 예정인 법정 스님의 추모법회를 취소했다. 길상사는 "(추모법회 봉행) 스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됐다"라고 밝혔다. 또 길상사 주지 덕현 스님 등 법정 스님 문도는 정부가 법정 스님에게 추서하려 한 국민훈장을 거절했다.

스님의 큰 뜻과 가르침을 열마만큼 헤아리고 어떻게 현현시키지는 '살아있는' 모두의 과제이다.

다비를 마치고 수습된 법정 스님의 유골은 송광사 불일암과 길상사에 나눠 안치됐다. 유골은 4월 28일 49세 이후 불일암과 강원도의 한 토굴에서 안치된다.

관원기사 2면 조동섭 · 이상연 기자

승려 사유재산 출연령 개정안 입법예고

조계종, 토론회 열어 종도 여론 수렴

승려사유재산의 종단 출연 제도의 법적 근거인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령' 개정안이 3월 16일 입법예고 됐다.

사유재산출연령 개정안은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 대상을 예비승을 포함한 종단 모든 승려로,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대한 수유자의 범위를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을 비롯한 제재본사, 제지 및 거

주사찰, 종단 관장하의 법인으로 확대했다.

특히 유언장 등을 제출하지 않은 승려에 대해서는 수계, 각급 고시 응시, 법계 풀수, 주지임명, 선거권·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 등이 신설됐다.

총무부 박종학 팀장은 "종단 방침 상 법 통과 이전에 시행령을 입법에 고했다"며 "유언장 미제출시 권리

제한 부분은 종회에서 관원법이 통과될 때까지 적용이 미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원법인 승려법 개정안은 제183회 임시중앙총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이월돼 현재 제류 중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23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토론회를 열고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조동섭 기자

4월 중 사장 문제 해결하겠다

불교방송, 진흥원과 간담회 추진

불교방송이 4월 중 진흥원과 간담회를 열고 2007년 11월 이후 공적인 사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불교방송(이사장 영담)은 3월 19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제71차 이사회를 개최한 직후 브리핑을 통해 "4월 중 진흥원과 불교방송 이사진들이 참석해 간담회를 열 것"이라면서 "불교방송은 현재 진흥원이 추천한

두 명의 사장 후보의 자격요건이 불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간담회를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사선임, 창원중계소 부지매입, 2009년 결산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이사회는 손준석 대한실업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총지중 원승 前 통리원장 후임으로 현 지성 통리원장을 선임했다.

이은정 기자

▶14 선지식-성원 스님 ▶4 인터뷰-정미화 ▶9 현장-여강선원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마음의 뿌리, 자기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語 - '살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돌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호는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www.hyunbulshop.com